# "불교 中道사상 평화 공존 열쇠"

## 종교인대화 30돌 심포지엄서 김용정교수·자레스씨 주제발표

근대이후 생태·문화위기의 상황속에서 정보화 사회의 도래등 문명의 전환은 새로운 종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챤아카데미(원장 강원룡)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18~20일까지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종교간대화 30주년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의 주제강연(18일)을 맡은 동국대 김용정교수는 '과학문명의 전환기 시대에 있어서의 종교의 역할'이란 발표문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다시 통합하고 역동적 세계를 전체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과 의식개혁이 뒤따를 때에만 종교가 이 전환기에 시대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또 "인간이 우월주의를 버리고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협동의 철학을 창출할 때 국가·종교간의 대립을 상호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며 "양극단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상호의존적인 연기(緣起)를 나타내는 불교의 중도(中道)사상이 집단간의 화합과 협력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정교수

◇자레스드수자씨

◇리버트로흐교수

### 문명 전환시대 종교의 새로운 역할 모색
### 환경보호·군축·여성폭력 등에 관심 촉구

19일 방글라데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종교협의회'의 자레스 드수자 원장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종교'를 통해 황금을 기초로하는 세계화를 '세계적 인종차별'로 규정, 이에 대한 다양한 불교적 대안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불교적 대안으로 △액킨(Aitkens)의 종교적 윤리적 가치체계로 돌아가라는 주장 △시바락사(Sivaraksa)의 선정(禪定) 자비 보시 등 불교적 개념에 근거한 삶의 체계를 의미하는 '불법(佛法)사회주의' △티즈데일(Teasdale)의 선(禪)이나 은둔, 무아봉공(無我奉公)과 예언자적 행위를 내포하는 '지구적 영성(靈性)' 등을 소개했다.

그는 또 세계화 시대에 종교인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 △수자원의 보호 △지구온난효과와 핵공해 예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의 균형 △생태계 보호 △훼손된 자연의 복구 △군수산업의 전환 등을 들었다.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생태학적 운동과 페미니즘의 합성어)에서 본 생명'을 발표한 네델란드 니즈메겐 가톨릭대학의 리버 트로흐교수는 여성과 제3세계인들에 대한 폭력과 자연의 파괴를 초래하는 세력들을 방어할 새로운 종교적 가치를 모색했다.

이밖에 영산대 한내창교수가 '정보화사회와 종교', 이화여대 최준식교수가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생명', 서울대 소광섭교수가 '현대과학에서 본 문명' 등을 발표했다.

김재경 기자

## 만해·조지훈詩 공통분모는 '비판성'

### 윤석성교수 비교논문 눈길

만해 시와 조지훈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윤석성 동국대교수(시인)는 지난 20일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홍기삼)가 주최한 '조지훈의 문학과 사상' 주제의 제15차 학술회의에서 '조지훈 시의 특질:만해와 관련하여'를 통해 두 시인의 시적 정취와 문학사적 위치를 비교분석했다.

### 선비정신과 불이사상 수용은 '차이점'

윤교수는 지훈과 만해 시의 공통점으로 전통성과 비판성을 들었다. '전통성'은 〈님의 침묵〉에 나오는 시와 시어를 통해 확인되고, '비판성'은 지훈의 〈역사 앞에서〉 이후 나타나는 메시지와 만해의 투철한 현실 인식에서 드러난다는 것.

반대로 두 시인의 이질성은 다기성(多岐性) 대 불이성(不二性), 고절성(孤絶性; 선비의식) 대 지향성으로 나타난다.

조지훈이 중심 이동이 잦고 자아와 세계 인식이 취약한 반면 만해는 불교적인 정신의 불이성을 나타낸다. 즉 만해에게는 '님'과 '나'가 불이이고 여성과 남성이 불이이다. 또 만해의 시가 역경 속에서 비극적인 지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지훈의 고절성과 대비된다. 눈물의 고통이 이별의 환희로 보상받는다는 것이 만해시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 美종교학회 학술회의, 내달 18~21일

미국종교학회(AAR; American Academy of Religion)는 11월 18~21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연차총회 및 학술회의를 연다.

불교분과의 주제로는 ◇18일 : △종교철학의 자원으로서의 불교-인격 사상 △인도불교의 문헌, 법주, 수행 △일본불교와 현대화 ◇19일: △도쿠가와부터 메이지시대의 선불교 △중국 오대의 룰타 토착화 △북미문학의 불교 △전승예식에서 무엇이 어떻게 전승되는가 △동아시아에서의 불교 주체화 ◇20일: △불교윤리의 재고 △禪의 정체성의 원류와 전승에서의 송대 선의 중요성 △배움의 기관-배우는 기관 △대승불교의 전통적 실재 등이다.

AAR 연차총회는 해마다 11월 셋째 주말에 시작되는데 7~8천여명의 종교학자들이 참여한다. AAR은 단일 학회로는 세계 최대의 단체이다.

### 동양철학회 월례발표회

한국동양철학회(회장 송석구 동국대총장)는 오는 27일 오후 4시 동국대 동국관에서 월례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이만 동국대교수가 '중국 유식의 심성론'을, 중국 북경대 루우열(樓宇烈)교수가 '중국 전통문화의 인문(人文)정신'을 각각 발표한다.

(02)260-3184

##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 김용사

海底泥牛含月走
(해저니우함월주)
岩前石虎抱兒眠
(암전석호포아면)

鐵蛇鑽入金剛眼
(철사찬입금강안)
寬嵩騎象鷲驀牽
(곤륜기상로자견)

바다밑 진흙소가 달 물고 달아나고
바위앞 호랑이는 아이들 안고 잠자네
철로된 뱀이 금강역사의 눈속을 뚫고 들어가며
곤륜에서 코끼리를 타니 자고새가 물고가네

대강당

### 깨우친 선사의 막힘없는 오도송

해설 김용사 대강당에 붙은 이 주련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모두가 허황된 사실을 읊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선시'란 측면에서 이해를 할 때 뭔가 알듯해 진다. 확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알듯해 진다'는 표현을 굳이 하는 것은 필자나 독자가 저 깊은 선(禪)의 깨우침 속에 들지않았을 경우에 대한 합당한 표현을 하려함이다.

아무튼 이 내용은 이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선사의 막힘 없는 기쁨이 토해내는 게송이란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글자에 얽매이면 알 수가 없다. 어쩌면 굳이 이렇게 문자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뜻을 왜곡시키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진흙 소가 바다밑에서 달을 물고 뛴다는 이 비상식의 세계. 호랑이가 아이를 품고 잔다거나 철로된 뱀이 그 무시시한 금강역사의 눈속에 들어간다거나 곤륜산에서 코끼리를 타니 백토떼가 물고간다는 그 어처구니 없음의 실재성을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상식도 인간의 좁다란 사고영역 안에서 만들어진 허울이고 비상식도 마찬가지다. 그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를 끊는 일, 그것이야말로 선수행자가 화두를 깨치는 일과 같은 번쩍임이다. 진흙소면 어떻고 철사뱀이면 어떤가. 그 소와 뱀의 형체에 대해서 혹은 존재에 대해서 조차 끄달리지 않는 경지를 넘어서지 않고는 선수행의 끝자락을 더듬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음을 비우고 경계를 훌쩍 넘어 상식도 비상식도 없는 곳에서 곤륜산의 코끼리를 타보자.

〈안동 경안중 교사〉

##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문 대학생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만 제 그릇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죽비를 내려주시고요. 〈하동철·충남 천안 목천〉

답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고 평생을 두고 정진하겠노라고 했죠.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인공 속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것이지 학생의 껍데기가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껍데기 아닌 주인공을 믿으세요.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자신이 더 발전하고 승화하는 것도 주인공이 한다고 굳게 믿으세요. 믿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비를 쳐달라고 하는데 이미 죽비로 맞은 것입니다. 누가 때렸느냐? 자기가 자기를 때린 것이지요. 학생이 묻고 내가 대답할 때 벌써 하나가 되었으니 죽비를 맞은 사이없이 맞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찰나찰나의 생활을 벗어나서는 내가 없고 나를 벗어나서는 생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남, 죽음, 삶이 그대로 부처님법입니다. 그걸 알려면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나는 쑥 빠져 보세요. 그것이 삼천대천세계를 아는 길입니다.

## 어떻게 사는게 바른 도리일까요

문 저는 자랑할 게 아무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는 도리만은 알아야 하겠다 싶어 경전을 여러권 읽어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게 도리에 맞는 것인지 가르침 바랍니다.

〈이세순·서울 노원구 중계동〉

답 인생이란 아시다시피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게 아니지요. 부모자식 간이라도 대신 먹어주고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라해도 제자를 대신하여 잠자 주고 죽어줄 수 없지요. 그러니 모두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생 왔다 가는 길에서 어디가 문이냐고 찾아다니는데, 더구나 문자를 통해 알아낼 양으로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 찾기가 어렵지요. 본래 이 길이 이게 문없는 문이니 그런 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주 쉽다, 왜냐,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든지 앉았든지 뭐든간에 '네놈에게 주인이 있어 움직거리게 하는 것이니까 네 몸뚱이, 네 인생 네가 끌고 다녀라' 하고 척 맡기라는 겁니다. 아, 어차피 한 철 놀다가는 인생이고 잠깐 살다가 때가 되면 옷 벗어 던지고 새 옷 입고 나올텐데 뭘 그렇게 안달하고 궁상떨고 할 게 있겠습니까?

맡겨 놓으면 편안해요. 맡겨 놓고 즐겁게 춤추고 놀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찍 될 건 일찍 되고 천천히 될 건 천천히 되고 하는 것이지 안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자꾸자꾸 발전해서 결국은 성불할텐데 뭐가 안타까울 일 있겠습니까?

## 수업중 잡념에 들지 않게 하려면

문 학교 선생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중에 집중을 하지않고 딴생각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게 늘 걱정입니다.

저도 설법을 듣는 중에 다른 생각에 잠겨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아이들도 그런가 싶습니다. 어찌해야 수업 중에 잡념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요?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한 말씀 고대합니다.

〈주영진·서울 강서구 등촌동〉

답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기울여야 전달이 잘 되겠지요. 선생님께서 온 정성을 집중해 애들한테 에너지를 쏟는다면 아마 7,80%는 따라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대목 한 대목씩 물리를 틔워주면 저절로 흥미를 갖게 될거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에너지를 적절히 불어 넣어주게 되겠지요.

아이들 보고 왜 딴 생각하느냐고 야단을 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아이들이라해도 제가 먹어보고 스스로 밥맛을 알아야 제밥 찾아먹는 것이지 강제로 먹인다고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먼저 느끼고 맛을 보아야만 합니다.

## 스님은 용(用)을 강조하시는데…

문 스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늘 용(用)에 대해서만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점이 미땅치 않군요. 〈강원도의 한 산승〉

답 날보고 왜 용, 용 하느냐고 하시는데 말씀이 좀 우습군요. 우리가 먹고 자고 깨고 똥누고 하는 게 그대로 용인데, 그대로 여여한 우리들의 법인데 용을 빼놓으면 그냥 송장이 되지는 말씀입니까?

아, 마음이 있음으로써 용이 있고, 생명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온통 용이 있는 것이지요? 눈 한번 치뜨고 내리뜨는 것도 용인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가르쳐야 한다면 송장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이다, 용이 아니다를 떠나서 그대로 생활 자체가 공부의 재료이고 부처님의 가르치신 바 법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늘 이런 말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얼만큼 진보되고 물리가 터져서 지혜롭게 맡은 일을 해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가정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는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얼마만큼이나 진실되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실천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심법으로 무전여행을 하며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도리의 구현이 있다고 말입니다.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뜻으로 잡수시길 바랍니다.

지 상 상 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제2회 전국 교정시설 교무과장 연수 법회 및

# 재범률 제로화운동 결의 대법회 안내

1989년 부처님의 자비, 보시정신으로 교정시설내 수용된 재소자들을 효율적으로 교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가 설립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회에서는 제2회 전국교정시설 교무과장, 교무계장, 불교담당, 불자회장 연수법회와 제산대덕 큰 스님들을 뫼시고 재범률 제로화운동 결의 대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그들을 위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9년 10월 일

■일 시:불기 2539(1995) 11월 6~7일
■장 소: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16일 오후6시~8시30분) 풍전호텔
■격려사 : 송월주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안후만(법무부 장관)
■주 최: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 (02)813-8842, FAX 812-8841
■후 원:법무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대한불교진흥원,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 한국불교포교사협회, 불교TV, 불교방송, 법무부 갱생보호회 불교협의회, 문화재기능인협회, 그 외 교계 주요 언론사
■동참금:5만원(교화보시금, 만찬)
■은행지로 7615731

한일은행 319-045950-01-001(예금주:한, 불, 선)
외환은행 119-13-08005-1(예금주:한, 불, 선)
조흥은행 394-06-162425(예금주:한, 불, 선)
상업은행 130-05-001140(예금주:한, 불, 선)
우 체 국 012070-0056581(예금주:한, 불, 선)
국민은행 029-01-0355-685(예금주:한, 불, 선)
농 협 064-01-164453(예금주:한, 불, 선)

※10월 31일까지 참석여부를 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참석못하시더라도 다소나마 보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명 안덕암 대종사
고 문 송월주 박성도 유동산 이법홍 박승용 석일화 우영명 석대산 김대호 문구암 정보성 권태허 천혜안 선각해 김도용 권범호 박운파 전야옹 이동광 이청봉 록 정
대회장 김명윤
지도위원 : 박서봉 전운덕 김락혜 이홍파 김대호 설대운 김법은 김혜정 정혜일 김광태 이태옥 정법륜 정희수 이법덕 김명곡 정희수 안효강 배일공 이대화 윤지명 김법우 신명관 김해곡 정법승 현봉해 소 암 권태순 전홍수 조일형 김무해 최혜초 이혜우 김혜운 서의륜 김동암 박의성 정덕일 설정 현근 정현 지홍 현해 철웅 법장 법성 무공 일타 설조 지관 고산 정관 목산 법조 도영 종열 현고 천운 중원 혜산 월운
봉행위원장 이혜철
부위원장 이기남 최홍주
이 사 남경희 이일광 홍환구 양운수 임월자 신동회 정 현 최중찬 이한봉 이용모 이선행
지부장 최혜산 박성건 이지홍 전덕분 김화숙 곽태일 박철수 김맹례 송영애 한상호 김혜광 권숙욱 김미영 장명희
자문위원(무순)
강선영 강회찬 곽정출 권익현 권해옥 김동권 김동근 김문기 김영일 김운한 김정수 김진영 김찬우 노인도 박구익 박규식 박우병 박준규 박태준 배명국 서석재 손승덕 손두호 송영진 신재기 유수호 이건영 이순재 장영철 정동호 정재철 정태영 조영장 주양자 최돈웅 허재홍 황윤기 권오태 강경식 강보성 곽정현 고세진 고재청 고원준 김근수 김노식 김병수 김 식 김양배 김영생 김 집 김진기 김태호 김정길 김홍만 박경석 박권흠 박유재 박익주 박지원 박현태 배명인 손주환 손태곤 백찬기 선민선 안영기, 양재항 연제원 염길정 윤길중 이강희 이기삼 이규호 이상민 이용택 이중희 이철승 임인규 전병우 전종천 전용원 정시봉 조강목 조기상 조상대 조용직 조일제 조종익 조만후 진치범 최명헌 최영덕 최재구 함종한 황 섭 황성균 황대봉 황병우 박희태 한정섭 송영길 목정배 신영순 하문수 권오현 강성호 김시영 김주량 최문영 안규준 성순경 구자순 남강수
추진위원장 정성도
부위원장 : 서철화 서무공 류혜준 석법정 박강봉 김무찰 김해동 김일남 홍숙희
추진위원 : 세용 원산 혜봉 석우 철우 금신 경담 학성 영계 청운 보화 김법온 석혜명 석혜련 이고허 손가산 석혜득 석혜춘 정지현 광명행 청정행 백운제 이원명 최성엽 김은애 김묘묵 김해운 이각명 김형민 고진법사
집행위원장 정혜성
부위원장 : 장각성 장사공 노병섭 박운곡 문부성 김성수 박일서 정정순 김용직 정광수

| | | | | | | |
|---|---|---|---|---|---|---|
| 기획분과위원장 : | 남월산 | 부위원장 | 이혜천 | 정동식 | | |
| 재무분과위원장 : | 김무공 | 부위원장 | 장동순 | 손종안 | | |
| 의전분과위원장 : | 박만화 | 부위원장 | 강혜일 | 손상묵 | | |
| 섭외분과위원장 : | 이법해 | 부위원장 | 주형근 | 이정회 | | |
| 홍보분과위원장 : | 심만춘 | 부위원장 | 남궁상 | 빈태봉 | 김묘주 | 김윤호 |
| 동원분과위원장 : | 혜 각 | 부위원장 | 김세웅 | 손안식 | | |
| 설비분과위원장 : | 일 도 | 부위원장 | 허 은 | 이광남 | | |
| 경호분과위원장 : | 장운혁 | 부위원장 | 임 은 | 손북수 | | |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후원회원
한국불교 포교사협회 회원, 동작구 불교연합회 회원
그외 전국 각 사암주지, 불교단체 대표 등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회장 이 혜 철 합장